

사막의 컬러를 입은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블랑팡이 새로운 버전의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Fifty Fathoms Bathyscaphe Day Date**) 모델을 소개한다. 1970 년대 블랑팡 다이버 위치에서 영감을 받아 500 피스 한정으로 선보이는 이 모델은 선버스트 패턴을 새긴 그레데이션되는 샌드 베이지 컬러 다이얼이 특징이다. 이 컬러 톤이 사막, 더욱 정확하게는 심해 사진의 선구자이자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 프로젝트에 공헌한 어니스트 H. 브룩스 II(Ernest H. Brooks II)가 1962 년 멋지게 잠수한 미국의 데스 밸리(Death Valley)의 컬러를 연상시킨다.

“악명 높은 데스 밸리에서 오전 7 시에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던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이빙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미 발 밑에서 뜨거운 모래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니스트 H. 브룩스 II 가 말했다. 그가 말하는 곳은 데빌스 홀(Devils Hole)로 거대한 물 속에 이르기 전 수심 120m 가 넘는 웅덩이가 있는 깊은 협곡 부분을 의미한다. 데빌스 홀은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한 물고기인 데빌스 홀 펍피시(학명: *Cyprinodon diabolis*)의 유일한 서식지로 브룩스가 처음으로 그 물고기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사막의 컬러를 담은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는 모험가, 열정적이고 창조적 마인드를 지닌 이들을 위한 시계다. 1970 년대 블랑팡은 고유의 혁신적 마인드를 발휘한 쿠션 형태 케이스, 기존 바깥쪽에 위치한 로테이팅 베젤을 대체한 이너 로테이팅 링, 그레데이션 그레이 컬러 다이얼, 요일과 날짜 인디케이션을 갖춘 제품들을 소개하며 바티스카프 모델의 전통적인 미학 코드를 깨부수고 탈피했다.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데저트 에디션(Bathyscaphe Day Date Desert Edition)의 다이얼은 이 스타일을 채택해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컬러인 샌드 베이지의 오묘한 그레데이션을 조합했다. 컬러와 선버스트 피니싱이 맑은 느낌을 선사하는 한편, 대담한 사이즈의 직사각 형태 아워 마커는 다이얼 위 즉각적이고 높은 가독성을 보장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5 분 간격마다 표시한 챕터 링이 1970 년대 시계의 이너 로테이팅 링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시계와 마찬가지로 날짜와 요일 창은 3 시 방향에 자리하고 있다. 바늘은 슈퍼-루미노바 코팅했고, 더 이른 시기 선보인 바티스카프 모델과 마찬가지로 바톤 형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데저트 에디션의 다이얼에 브라운 세라믹 인서트와 리퀴드메탈® 아워 마커를 갖춘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이 가세하며 매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새로운 모델은 빈티지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메커니즘은 극도로 현대적이다. 43mm 새틴 브러싱 처리한 스틸 케이스에 담긴 30bar(300m) 방수 가능한 매뉴팩처 1315DD 무브먼트는 다이버 위치에 필수적인 기능적 특징을 모두 탑재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특히 유용한 5 일 파워리저브도 갖추고 있다. 그 외의 주요 특징으로 정확성을 보장하고 자성으로부터 안전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춘 밸런스를 들

수 있다. 시계의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백을 통해 NAC 코팅 처리한 골드 로터를 포함해 이 하이엔드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피니싱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시계에 독자적인 개성을 더한다.

500 피스 한정 생산하는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트 데저트 에디션의 다이얼 모델은 다이얼의 따뜻한 톤과 매치를 이루는 샌드 컬러 세일 캔버스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